

[사회]

6·25때 '나주 동창교서 국군이 100여명 총살'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회복·피해 구제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이하 위원회)는 13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나주 동창교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1951년 1월20일 나주시 세지면 동창교 일대에서 오통리와 벽산리 주민 74명 이상이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5중대가 오통리와 벽산리로 진입해 주민 200여명을 동창교 아래 집결시킨 뒤 군인 가족 등을 가려내고 노인과 여성·유아 등 마을주민을 동창교 인근 신복여관 앞 밭에서 전원 총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31명이고, “나주시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추진위원회”에 의해 파악된 별도의 희생자까지 고려하면 희생 규모는 최소 74명에서 최대 140여명까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가는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한 방법을 적극 마련하며 ▲전시 중 민간인 희생이 없도록 관련 법령 국제법 수준으로 정비 ▲역사 기록 수정과 평화인권 교육 ▲위령사업의 지원등 정부차원의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실미 밝혀져 고인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2년 전북도경이 월북시인 오장환의 급서 ‘병든 서울’을 읽은 군산제일고 교사 이광웅씨 등 교사 9명을 불법 연행한 ‘오송회 사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10~23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 등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광주교섭에서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한 것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덧붙였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나주 동창교 집단 희생 사건’의 희생자 유족인 선병수(74)씨가 13일 나주시 세지면 위령비 앞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선씨는 “국군들에게 총을 난사했다”고 증언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kwangju.co.kr



15일 개장하는 호남 최대 규모의 물놀이 테마파크인 중흥골드스파&리조트의 워터롤러코스터.

나주호에 호남 최대 물놀이 테마파크

‘골드스파&리조트’ 내일 개장...20여가지 초대형 시설

나주지역에 호남 최대 규모의 물놀이 테마파크가 문을 연다. 중흥건설(주)과 나주관광개발(주)은 “오는 15일 물놀이 테마파크 등 사계절 복합휴양지인 ‘중흥골드스파&리조트’를 3년여 공사 끝에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파·리조트 단지는 1만3천여평 규모로 나주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나주시 남평읍 일대에 조성됐다. 야외 물놀이 테마파크인 ‘레인보우 오션’에는 동양 최대 크기로 알려진 ‘토네이도’를 비롯,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하는 ‘레이싱 슬라이드’, 국내 최고 규모의 ‘자기부상 워터 롤러코스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패밀리 슬라이더’ 등 20여 가지 초대형 물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한 컴퓨터기와 물대포가 재미를 더하는 230m 길이의 ‘아바존 리버’, 물 폭탄이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아쿠아 플레이어’, 바다에 온 듯 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파도 풀’ 등도 환상적이다.

지하 800m에서 끌어올린 천연 암반수가 흐르는 실내 사계절 테마스파인 ‘휴안수(休安水)’도 이곳의 자랑이다. 휴안수에서는 노천탕과 아로마탕, 한방탕 등 동·서양의 건강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나주를 테마로 한 ‘나주정천’(羅州淨泉)의 12가지 테마스파와 독일식 수치료 스파인 바데풀을 한국인에 맞게 적용시킨 ‘정강원(淨康園)’, 피로감을 덜어주는 ‘골드 테라피’ 등도 마련됐다.

부대시설로는 다목적 잔디구장과 물썰매장을 갖췄다. 각종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 센터’도 운영한다. 102실 규모의 콘도와 1천2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회장 등도 물놀이 테마파크 개장과 함께 문을 연다. 문의(061-339-5000) /나주=최승필기자 srchoi@

Weather forecast for June 14th (Thursday, June 29th) with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and a table of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불볕더위 주춤...오늘 10~30mm 비

14일 광주·전남지역에는 10~3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 지방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지역은 남해상을 지나오는 저기압 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한 두 차례 비가 내릴 것”이라며 “강수량은 40~60%로 예상 강수량은 10~30mm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남부 해상에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물결이 1~2.5m정도로 높을 것으로 예상돼 조업종이거나 항해중인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연세대 논술, 암기보다 사고력 중점

출제방향 확정

연세대는 2008학년도 논술시험에서 단순 암기에 의한 반복 학습 능력이 아닌 창의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논술 출제 방향’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세대는 이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2차 논술모의시험의 문제 해설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논술 출제 방향을 공개했다. 연세대는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교과 과정 내 기본 지식 반영하는 문제 출제 ▲다양한 답 유도해 수험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측정 ▲영어·한문 문장 제시 문에서 배제 ▲자연과학적 지식 검증

은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쳐도 출제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자연계열에서는 ▲교과과정 내 기본지식 사용해 출제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사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 평가 ▲단순계산 문제 지양 ▲실험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능력도 판단 등을 출제 방향으로 정했다. 연세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모의 논술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을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된 이번 모의고사의 문제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에서 각각 지난 9월과 11월 이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연합뉴스

고령 자격증 소지자 교장 우선 임용

광주시교육청 중·고교도 확대 시행

교장공모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기득권 감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고령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정년이 다가온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교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방안을 중·고교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중·고 교장 임용 결정 시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나 정년을 2년 이내로 앞둔 자격증 소지자의 순위가 필요인원의 3배수 안

에 들 경우 우선 임용대상으로 배려키로 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수년전부터 초등교장에 한해 적용하던 원칙을 중·고교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나치게 연공에 의존하다 보니 임용 대상자들이 ‘엿을 살펴 보는’ 부차용도 생겨서 탄핵될까봐 정년을 연장했다”며 “해당자들에게는 정년 전 교장 임용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경기자 hwangtae@kwangju.co.kr

10세부터 ‘촉법소년’...보호처분 범위 확대

법무부는 13일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촉법소년’ 범위를 기존 ‘12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소년법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은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촉법소년 범위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처분조치 받지 않았던 만10세~11세

소년들이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소년법이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은 경우에 따라 소년법에게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 구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비행 소년을 보호처분할 때 그 보호자도 소년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제도’도 포함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한교 전화영어' (Hangeo Jeonhwa English) featuring a group of students and text describing the program's benefits for English learning.

Advertisement for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Magic Free Student Recruitment) for a magic school, listing course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도로교통사고감정사' (Traffic Accident Appraiser) with details on the exam schedule, application process, and exam content.